



대림 제3주일 (12월 11일)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?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? (마태 11:2-11)



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(디에릭 보우츠, 1462-1464년, 목재, 뮌헨 알테 피나코테크 미술관, 독일)

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졌음을 알리고, 이를 기뻐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대림 제3주일 인 오늘을 ‘환희의 주일’, ‘기쁨의 주일’이라 부릅니다. 하느님이신 분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강생의 신비를 통해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. 『생명의 복음』(102항) 이 만남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 생명의 가치가 드러났습니다. 그래서 구세주 강생의 신비는 모든 인간 생명이 갖는 기쁨의 원천입니다.

지영현 시몬 신부(서울대교구) (출처 : 서울주보, 2013. 12. 15.)

시작성가

| 진행자 | : 가톨릭 성가 88번 “임하소서 구세주여”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.
(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.)

주님 초대하기

| 진행자 | :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.
(초대기도가 힘들 때,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.)
- 주님!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려주소서.
- 주님,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.

하느님 말씀

| 진행자 | : 한 분이 마태오 복음 11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.

✠ 그때에 2 요한이,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, 3 “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?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?” 하고 물었다. 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. “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. 5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,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,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. 6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.” 7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. “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?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? 8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?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나?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. 9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? 예언자냐? 그렇다.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.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. 10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. ‘보라, 내가 네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.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.’ 1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.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.”

| 진행자 | :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.



| 진행자 | :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시다.

✝ “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?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?”(마태 11,3)

진정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내 안에 임하여 들어오시기를 청한 적이 있습니까?

✝ “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.” (마태 11,6)

인간적으로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하느님의 존재를 의심한 적은 없습니까?

| 진행자 | :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.

한걸음 더 나아가기

| 진행자 | :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.
(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.)

✝ 승진이나 사업 등, 인간적으로 간절히 원해서 기도한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많은 교우들이 하느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믿음에 회의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하는 기도와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청하는 것은 정반대에 놓여있습니다.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섭리 된 하느님의 뜻을 알아보고 그 뜻을 따라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. 내 기도와 내 뜻이 이루어지

지 않았다고 하느님과 신앙을 의심하는 태도는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인 종교관에 머물러있는 저급한 모습일 뿐입니다. 깊은 신앙인은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과 계획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청합니다. 바로 이런 믿음과 기도를 통해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. “주여 임하소서. 제 마음에” 올해에는 주님께서 내 안에 탄생해 오시는 성탄을 맞이해보시기 바랍니다.

생명의 말씀 정하기

| 진행자 | :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.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?

말씀 살기

| 진행자 | :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. (나눔 후)

| 진행자 | :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‘생명의 말씀’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.

마침기도

| 진행자 | :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.

마침성가

| 진행자 | : 가톨릭 성가 88번 “임하소서 구세주여”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.
(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.)